

12-18개월 영아의 애착 행동 특성 연구

Attachment Behavior Characteristics of Infants in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김은하(Eun Ha Kim)¹⁾
 최해훈(Hae Hoon Choi)²⁾
 이순행(Soon Hang Lee)³⁾
 방희정(Hee Jeong Bang)⁴⁾

ABSTRACT

The attachment of Korean infants with their mothers was analyzed by individual attachment and interaction behaviors. The Strange Situation was used with 35 12- 18-month-old infants. Results were similar to the findings of Ainsworth et al(1978), in that exploratory and attachment behavior systems of Korean infants changed depending on separation with their mothers. Then again we could discover the original attachm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infants. Korean infa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individual attachment and interaction behaviors from the second separation(episode 6), and the difference between attachment type were also definite from the second separation. Also, the recovery of exploratory behavior from episode 7 with the advent of a stranger was a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 compared to Ainsworth et al(1978). This empirical evidence mandates the inclusion of episodes 6 in future studies on attachment of Korean infants.

Key Words : 영아(infant), 애착(attachment), 낯선 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I. 서 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출생 후 독립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양육자의 보호와 보살핌이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양육행

동을 이끄는 것이 애착행동이다(Ainsworth, 1982).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결속이나 정서적인 유대관계(Bowlby, 1969)로, 생의 초기에 형성하는 애착은 개인의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어지며 이후의 성장 발달에도 중요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³⁾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⁴⁾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 Ha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ynamon@hanmail.net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owlby, 1958, 1969) 발달심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처음 애착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애착에 있어 개인차로, 개인이 애착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가 연구의 초점이었다. 이러한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는 구조화된 격리-재결합 상황, 즉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에서 부모에 대한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의 조직화에 대한 관찰을 통해 연구되어졌다. Ainsworth 등은(1978) 이를 근거로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된 영아들의 애착을 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 안정 애착(B유형), 불안-회피 애착(A유형), 불안-저항 애착(C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거듭되면서 기존의 세 가지 유형에는 잘 맞지 않는 영아들이 발견되었고, Main과 Solomon(1986, 1990)은 이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D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그 이후 낯선 상황 절차를 사용했던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안정형 애착은 정상 집단의 55-65%, 불안-회피형 애착은 20-30%, 불안-저항형 애착은 5-15%,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15-25%로 보고되고 있다(Main, 1994; Goldberg 등, 1995).

이처럼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낯선 상황 절차는 미국과 서구 유럽 등에서 영아기 애착을 연구하는 표준화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 하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서 실시된 애착 연구 결과는 미국 표본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안정, 불안-회피, 불안-저항,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의 순서와는 다른 경우들이 종종 보고되었으며, 이런 결과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졌다. 즉 Ainsworth 등(1978)은 안전-기저 행동이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잘 각성된다고 하였는데, 문화에 따라 낯선 상황에서 느끼

는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애착을 평가할 때는 그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Takahashi, 1986). 반면 van Ijzendoorn과 Kroonenberg(1988)는 이후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미국과 여러 문화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한 결과 애착 유형의 빈도에서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이기보다는 문화내의 표집 차이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낯선 상황 절차라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애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화내의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문화내의 표집 차이인지 아니면 실제 문화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김종순(1989), 이영환(1992, 1993), 박응임과 박성연(1994), 박응임(1995), 최해훈(1997), 나유미(1997), 박응임과 유명희(1997), 장미자와 조복희(1999), 양연숙(2000), 양연숙과 조복희(2001) 등이 애착 연구의 도구로서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대부분 애착의 선행요인이나 애착과 이후 발달적 결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많은 경우 비조직 애착 유형을 제외하고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착 유형 분포와 우리나라 영아들의 고유한 애착 행동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효순(1985), 김종순(1989), 박응임과 박성연(1994), 이영환(1992, 1993), 장미자와 조복희(1999)는 에피소드 6을 생략하거나 에피소드의 지속 시간을 수정하였고, 유효순(1985)과 김종순(1989)의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반응을 분석하는 평정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국내 연구들이

이처럼 실험 절차나 평정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은 연구자들은 에피소드 6이 우리나라 영아에게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부여하며, 실제적으로 애착 유형 분류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서 생략하더라도 애착 유형 분류 시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나유미, 1997). 그러나 낯선 상황 절차는 영아의 애착 제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이 때 영아가 나타내는 애착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에피소드의 진행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에피소드 자체를 생략할 경우 실험에서 의도하는 정도로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영아가 부모와 재결합할 때 보일 수 있는 애착 행동의 강도와 양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Ainsworth 등, 1978).

국내 연구 중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를 비교적 그대로 적용한 연구로 나유미(1997), 최해훈(1997)이 있다. 하지만 나유미(1997)의 경우 애착을 세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였으며, 안정 애착 98%, 불안-회피 애착 2%로 불안-저항 애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반면 최해훈(1997)에서는 안정 애착 57%, 불안-회피 애착 3%, 불안-저항 애착 27%,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13%로 나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국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가지고 낯선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 행동 특성과 애착 유형 분포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실험 절차를 통해 영아들의 애착 행동을 관찰하고, 네 가지 분류 체계를 이용해 애착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확한 실험 절차와 평정 체계를 사용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야 비로서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 유형 분

포와 애착 행동에서 고유한 특성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준화된 연구 방법으로서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하고, 우리 나라 영아들의 애착 행동의 질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개별 애착 행동(탐색 행동, 애착 행동)이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상호 작용 행동(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유지, 저항, 회피)이 재결합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시 그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은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신촌, 은평, 여의도, 일산)에 거주하는 만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영아와 어머니 41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6명은 비디오 테잎의 녹화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정 환경 요인이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고, 총 35명이 분석되었다. 전체 영아 중 여아가 14명, 남아가 21명으로 모두 정상 분

만이었으며, 실험 당시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최저 월령은 12개월 3일, 최고 월령은 18개월 26일로 평균 15.6개월($Mdn=16.0$, $SD=1.6$)이었다. 취업모의 영아는 어머니와의 격리시에 비취업모의 영아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Le Vine & Miller, 1990; 나유미, 1997에서 재인용) 연구 대상은 전업주부로 제한하였으며, 영아들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였다.

2. 연구도구

1) 낯선 상황 절차(SSP)

Ainsworth는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행동을 지표로 삼기보다 여러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중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험실 상황에서 행해지는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 SSP)'를 고안하였다(Ainsworth & Witting, 1969). 이는 애착의 질에 있어 개인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낯선 상황 절차는 영아에게 낯선 환경이 될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실시하며, 어머니와의 격리 및 재결합, 낯선이의 출현과 같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는데 도입의 약 30초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에피소드들은 각각 3분씩 지속된다. 이 실험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영아가 낯선 상황에

〈표 1〉 Ainsworth(1978)의 낯선 상황 실험 절차

에피소드	시간	존재하는 사람	행 동
1	30초	I, M, O	연구자가 어머니와 영아에게 실험실을 소개하고 나간다.
2	3분	I, M	어머니는 영아가 혼자서 탐색하도록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다. 영아가 먼저 상호작용을 원할 때만 반응한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어머니는 2분 후에 영아가 놀이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3	3분	I, M, S	낯선이가 들어와 처음 1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두 번째 1분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고 마지막 1분 동안은 영아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3분이 되면 어머니는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4	3분	I, S	첫 번째 분리상황. 낯선이는 영아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영아의 행동에 맞추어 원할 때만 응해준다.
5	3분	I, M	첫 번째 재결합. 어머니는 밖에서 영아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방으로 들어온다(낯선이가 나감). 영아가 접촉을 요구하면 그에 맞춰 영아를 편안하게 해준 뒤, 다시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 후 의자에 앉는다. 3분이 되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안녕'이라고 인사 한 후 밖으로 나간다.
6	3분	I	두 번째 분리 상황. 영아가 혼자 남아 있다.
7	3분	I, S	낯선이가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영아가 울면 안아주고 달래어 편안하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8	3분	I, M	두 번째 재결합. 어머니가 들어와서 영아를 반갑게 맞이하고(낯선이가 나감) 영아가 원하면 안아준다.

주. O : 관찰자, I : 영아, M : 엄마, S : 낯선이.

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한 얼마나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하는가 이다. 각 에피소드에서 연구자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피소드 1 : 엄마의 품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영아의 반응. 2) 에피소드 2 :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영아의 탐색 행동과 엄마에 대한 행동 특성. 3) 에피소드 3 : 엄마나 장난감에 비교했을 때 영아가 낯선이에게 보이는 관심의 차이, 낯선이가 접근할 시 반응. 4) 에피소드 4 : 초기 에피소드와 비교할 때 분리로 인한 영아 탐색 행동의 변화, 엄마가 떠난 것에 대한 반응, 낯선이에 대한 반응. 5) 에피소드 5 : 첫 번째 재결합시 영아와 엄마간의 상호작용, 엄마가 나갈 때 영아의 반응. 6) 에피소드 6 : 두 번째 분리로 영아가 낯선 상황에 혼자 남겨졌을 때 탐색 행동의 변화,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반응. 7) 에피소드 7 : 에피소드 5에서 엄마와 재결합했을 때와 비교하여 낯선이가 들어왔을 때 영아의 반응, 영아의 장난감에 대한 관심. 8) 에피소드 8 : 두 번째 재결합시 영아와 엄마의 상호작용 (Ainsworth 등, 1978). 낯선 상황 절차는 이와 같이 연구자가 영아의 애착 제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영아가 보이는 애착 행동을 측정·평가하고, 질적으로 서로 다른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고안된 구조화된 관찰 상황으로 애착 제어 체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3. 연구절차

1) 예비실험실시

예비실험은 2002년 7월에 Ainsworth 등(1978)의 낯선 상황 절차를 그대로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에서는 에피소드별 지속시간, 장난감 유형이나 자리 배치, 낯선이와 어머니, 영아의 행동, 특

히 영아의 경우에는 에피소드 6에서 스트레스 반응 등 실험절차상의 문제점과 비디오 카메라의 화면 조정에서 유의할 부분을 알아보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에피소드 6을 생략하거나 각 에피소드별 지속시간을 단축하는 등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실험 절차와 평정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에피소드 6이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부적절 한지를 알아보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방법론상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영아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에피소드 6의 분리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 어머니에게 실험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위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낯선 사람 역할을 위해서는 발달심리전공 대학원 석사생 두 명이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이 녹화된 테이프를 관찰, 충분한 토의와 훈련을 거쳤다.

2) 본실험실시

아동의 애착 특성 및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 실험 전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가 끝난 후 영아가 충분히 진정할 여유를 주고, 어머니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 5분간의 자유놀이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영아의 건강, 영아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관계, 영아의 발달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와 사회 성숙도 검사(SMS), 덴버 발달 선별 검사(DDST)를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낯선 상황 절차에서 보인 영아들의 행동 분석은 Ainsworth 등(1978)의 지표를 참조하여 개별

애착 행동에 대한 빈도 분석과 상호 작용 행동에 대한 7점 평정이 실시되었고, 애착 유형 분류는 Ainsworth 등(1978)의 애착 유형 분류 준거와 Main과 Solomon(1990)의 비조직/비일관적 유형에 대한 지표에 따라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의 네 가지 체계로 이루어졌다.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애착 행동은 애착 행동과 탐색 행동 두 가지로 나뉘며, 애착 행동에는 울기, 탐색 행동에는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이 포함된다. 개별 애착 행동의 경우 영아들이 각 에피소드에서 15초 간격으로 보여주는 목표 행동의 빈도를 세었다. 이 때 각 에피소드의 기준 시간은 3분이며, 획득 가능한 최고 빈도는 12번이다. 각 목표 행동이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울기는 진짜로 우는 행위와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우는 얼굴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탐색적 이동은 장난감을 만지기 위한 행동이나, 물리적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행동이다. 셋째, 탐색적 조작은 탐색적인 손의 움직임으로 신체적 접촉, 표현적인 चेсть와 같은 손 움직임은 제외된다. 넷째, 시각적 탐색은 장난감이나 물리적 환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바라보는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엄마와 연합되어진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제외된다.

상호 작용 행동은 행동의 신속성, 행동의 빈도, 행동의 지속 시간, 행동의 활동성 및 주도성을 고려하여 7점 평정 척도로 평가되며, 애착 행동(attachment behavior)인 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 유지와 반사회/반애착 행동(behaviors antithetical to attachment or sociability)인 저항과 회피로 구분된다. 첫째, 근접성과 접촉 추구(proximity and contact seeking)는 영아가 엄마에게 가까이 가고

〈표 2〉 개별 애착 행동에서 관찰자간 신뢰도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	울음
관찰자	.948 - 1.00	.944 - .997	.926 - 1.00	.978 - 1.00
집단 1	(Mdn=.994)	(Mdn=.990)	(Mdn=.991)	(Mdn=1.00)
관찰자	.968 - .996	.986 - .998	.786 - 1.00	.969 - 1.00
집단 2	(Mdn=.986)	(Mdn=.996)	(Mdn=.997)	(Mdn=1.00)
관찰자	.853 - 1.00	.894 - 1.00	.894 - 1.00	1.00
집단 3	(Mdn=.993)	(Mdn=.987)	(Mdn=.984)	(Mdn=1.00)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동하는가 이다. 둘째, 접촉 유지(contact maintaining)는 엄마와의 접촉이 달성된 후 이러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영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동하는가 이다. 셋째, 반사회/반애착 행동 중 저항(resistance)은 엄마를 벌주듯 밀어내거나 차며, 엄마의 접촉에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하고, 엄마가 내미는 장난감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다. 넷째, 회피(avoidance)는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가 엄마에게 가까이 가고 상호 작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개별 애착 행동은 연구자와 발달심리전공 석사과정 네 명이 세 집단으로 나뉘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 작용 행동을 지표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미국에서 낯선 상황 절차 워크샵에 참가한 박사과정 두 명에 의해 실시됐다.

정확한 평정을 위해 연구자와 평정자들이 함께 예비 실험의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 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에피소드에서 보인 영아 행동의 평정에 대한 신뢰도는 아래 표와 같고,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100%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평정자간 불일치가 일어난 경우 테잎을 다시 돌려보고 토의하였다.

개별 애착 행동을 빈도 분석한 자료와 상호 작용을 평정한 자료는 SPSS/PC+Version 1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별로 분석하였다.

1. 개별 애착 행동이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반복 측정 설계를 이용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상호 작용 행동이 재결합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반복 측정 설계를 이용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애착 유형의 분포 비율을 구하고, 성별에 따라 애착 유형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Levene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애착 유형에 따라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에피소드에서 목표 행동을 일원 변량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사후 분석하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들의 개별 애착 행동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개별 애착 행동이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지 반복 측정

설계를 이용해 변량 분석한 결과 탐색적 이동 [$F_{(6, 204)}=9.18, p<.001$], 탐색적 조작 [$F_{(6, 204)}=24.86, p<.001$], 시각적 탐색 [$F_{(6, 204)}=43.60, p<.001$], 울기 [$F_{(6, 204)}=34.27, p<.001$]가 <표 3>과 같이 에피소드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탐색적 이동과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은 에피소드 2(분리 전)에서 최고로, 에피소드 6(두 번째 분리)에서 최저로 나타난 반면 울기는 에피소드 6(두 번째 분리)에서 최고로, 에피소드 2(분리 전)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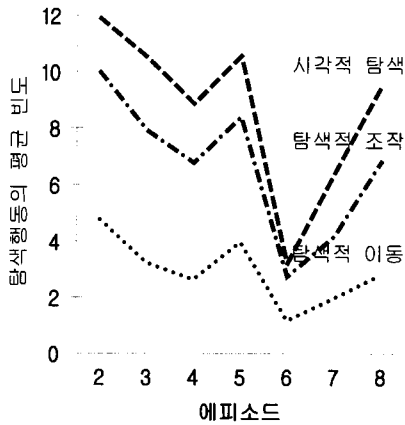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은 <그림 1>과 같이 에피소드 2(분리 전)에서 가장 빈번하며, 에피소드 6(두 번째 분리)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에피소드 7부터 회복되는데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도 에피소드 5(첫 번째 재결합)만큼 회복되지는 않는다. 울음은 <그림 2>와 같이 탐색 행동과는 정반대의 경향성을 보이며, 에피소드에서 2(분리 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계속 증가하다가 에피소드 5(첫 번째 재결합)에서 감소한다. 또한 에피소드 6(두 번째 분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후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까지 감소하지만 에피소드 5(첫 번째 재결합)만큼은 아니다.

<표 3> 낯선 상황 절차에서 영아들의 개별애착행동의 평균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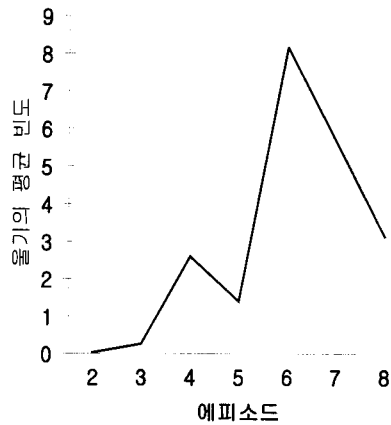
개별 애착 행동	에피소드							F (6, 204)
	2 (I, M)	3 (I, M,S)	4 (I, S)	5 (I, M)	6 (I)	7 (I, S)	8 (I, M)	
탐색적 이동	4.77	3.23	2.63	3.97	1.17	1.97	2.80	9.18***
탐색적 조작	9.97	7.91	6.77	8.40	2.74	4.17	6.80	24.86***
시각적 탐색	11.89	10.51	8.86	10.57	3.20	6.37	9.49	43.60***
울 음	.03	.26	2.60	1.40	8.17	5.66	3.14	34.27***

주. 괄호안은 그 에피소드에 존재하는 사람(M : 엄마, I : 영아, S : 낯선이).

*** $p<.001$



〈그림 1〉 에피소드별 탐색 행동



〈그림 2〉 에피소드별 울음

2. 재결합 에피소드 상호 작용 행동 특성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상호 작용 행동이 에피소드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량 분석한 결과 근접성과 접촉추구 [$F_{(1, 34)}=6.19, p<.05$], 접촉유지 [$F_{(1, 34)}=6.46, p<.05$], 저항 [$F_{(1, 34)}=6.57, p<.05$]이 <표 4>와 같이 에피소드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5)보다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 추구가 3.14에서 3.69로, 접촉 유지는 2.09에서 2.60으로, 저항은 1.43에서 1.91로 평균 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회피는 에피소드 5와 8이 모두 1.86으로 동일하였다.

〈표 4〉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상호작용행동의 평균 강도

	에피소드 5		에피소드 8		F (1, 34)
	M	SD	M	SD	
근접성과 접촉 추구	3.14	1.96	3.69	1.20	6.19*
접촉유지	2.09	1.60	2.60	2.06	6.46*
저항	1.43	0.92	1.91	1.56	6.57*
회피	1.86	1.24	1.86	1.56	.00

* $p<.05$

첫 번째 재결합에서 두 번째 재결합에 걸친 영아들의 상호 작용 행동 변화를 그 수준별로 자세 히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상호 작용 행동 중 애착 행동인 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 유지를 보인 영아의 비율도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근접성과 접촉 추구의 경우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약한 정도의 근접성 추구를 보인 영아는 감소한 반면 4-7의 강한 근접성을 보인 영아가 37.2%에서 51.4%로 증가하였다. 접촉 유지 행동을 보인 영아 역시 42.9%에서 54.3%로 증가하였다. 특히 6-7의 매우 강한 정도의 접촉 유지를 하는 영아들이 2.9%에서 17.1%로 증가했다. 반

〈표 5〉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상호작용행동을 보이는 영아들의 백분율

강도	근접성 및 접촉 추구		접촉 유지		저항		회피	
	E5	E8	E5	E8	E5	E8	E5	E8
6-7	11.4	22.8	2.9	17.1	.0	2.9	.0	5.8
4-5	25.8	28.6	17.4	11.4	5.7	8.6	11.4	8.6
2-3	31.4	25.8	22.9	25.8	14.3	20.0	28.5	20.0
1	31.4	22.9	57.1	45.7	80.0	68.6	60.0	65.7

(단위 : 백분율)

애착 행동인 저항과 회피를 살펴보면 저항은 에피소드 5에서 전체 영아의 20%에게만 나타났으며, 대부분 2-3의 약한 강도였으나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31.9%의 영아가 저항 행동을 보였으며, 4-7의 저항 행동을 보인 영아들도 5.7%에서 11.5%로 증가하였다. 회피 행동을 보인 영아의 경우 40%에서 34.3%로 감소한 반면, 6-7의 매우 강한 회피를 보인 영아는 5.8%로 증가하였다.

3. 낮선 상황 절차에 의한 애착 유형 분포

우리나라 중류층 비취업모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애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표 6>과 같이 전체 영아 중 62.9%가 안정 애착, 14.3%가 불안 회피 애착, 불안 저항애착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이 각각 11.4%로 나왔다.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른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_{(1, 34)}=.826, p=.37$).

<표 6> 낮선 상황 절차에 의한 애착 유형 분포

애착유형	남 아	여 아	전체(백분율)
불안-회피 (A)	4	1	5(14.3)
안 정 (B)	12	10	22(62.9)
불안-저항 (C)	4	0	4(11.4)
비조직/비일관 (D)	1	3	4(11.4)
전체	21	14	35(100)

4. 애착 유형에 따른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작용 행동

애착 유형에 따른 애착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행동이 애착 유형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을 중심으로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에 대해 변량 분석하였다. 여기서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뚜렷한 목표 없이 일관되지 못하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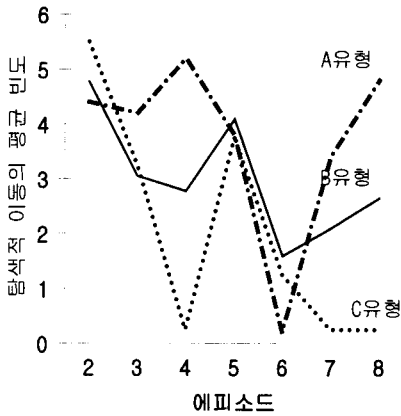
먼저 개별 애착 행동의 경우 애착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표 7>과 같이 에피소드 7과 8에서 탐색적 조작[에피소드 7 : $F_{(2, 28)}=7.04, p<.01$, 에피소드 8 : $F_{(2, 28)}=6.56, p<.01$], 에피소드 7과 8에서 시각적 탐색[에피소드 7 : $F_{(2, 28)}=7.91, p<.01$, 에피소드 8 : $F_{(2, 28)}=6.29, p<.01$], 그리고 에피소드 2, 7, 8에서 울기 [에피소드 2 : $F_{(2, 28)}=4.07, p<.01$, 에피소드 7 : $F_{(2, 28)}=5.51, p<.01$, 에피소드 8 : $F_{(2, 28)}=7.63, p<.01$]이다.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안-회피 애착이 안정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보다 에피소드 7에서 시각적 탐색과 탐색적 조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회피 애착과 안정 애착이 불안-저항 애착보다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시각적 탐색과 탐색적 조작을 더 많이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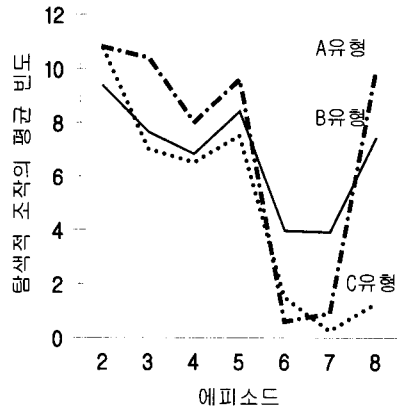
<표 7> 일원변량분석에서 애착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개별애착행동

개별애착 행동	에피 소드	M			Total	F (2, 28)
		A	B	C		
탐색적 조 작	7	9.00	3.91	.25	4.26	7.04**
	8	10.00	7.41	1.25	7.03	6.56**
시각적 탐 색	7	11.40	6.32	1.00	6.45	7.91**
	8	11.40	9.64	6.25	9.48	6.29**
	2	.00	.00	.25	.03	4.07*
울 기	7	.00	5.59	11.00	5.52	5.51*
	8	.00	2.41	8.25	2.77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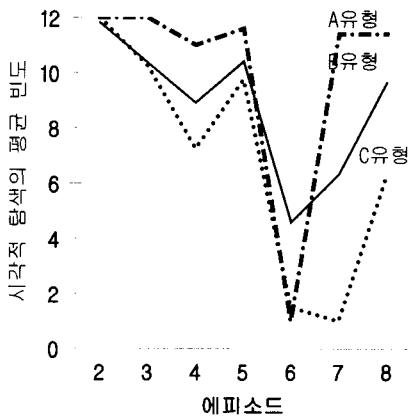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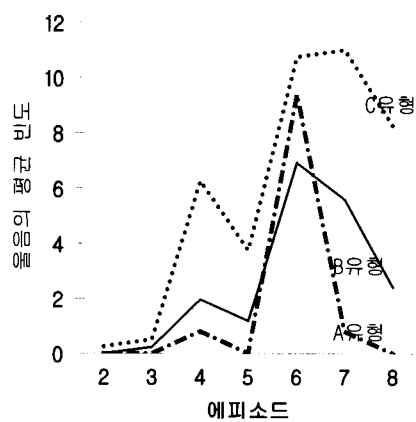
<그림 3> 애착 유형별 탐색적 이동



<그림 4> 애착 유형별 탐색적 조작



<그림 5> 애착 유형별 시각적 탐색



<그림 6> 애착 유형별 울기

다. 울기의 경우 엄마와 함께 있는 에피소드 2 (분리 전)와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불안-저항 애착이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보다 많이 울었으며, 낯선이와 함께 있는 에피소드 7에서는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많이 울었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낯선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각 애착 유형별 영아들이 보인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 탐색, 울기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변량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근접성과

접촉추구[에피소드 5 : $F_{(2, 28)}=6.47, p<.01$, 에피소드 8 : $F_{(2, 28)}=8.24, p<.01$], 접촉유지[에피소드 5 : $F_{(2, 28)}=6.28, p<.01$, 에피소드 8 : $F_{(2, 28)} = 10.52, p<.001$], 저항[에피소드 5 : $F_{(2, 28)}=6.90, p<.01$, 에피소드 8 : $F_{(2, 28)}=37.05, p<.001$], 회피 [에피소드 5 : $F_{(2, 28)}=19.39, p<.001$, 에피소드 8 : $F_{(2, 28)}=27.80, p<.001$]가 에피소드 5와 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근접성과 접촉추구의 경우 에피소드 5에서는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높았으며,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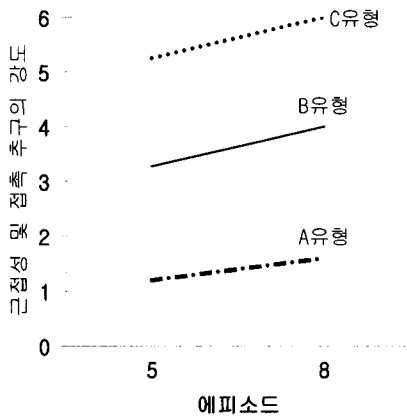
<표 8>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애착 유형간 상호작용행동

상호작용	에피소드	M				F (2,28)
		A	B	C	Total	
근접성과 접촉추구	5	1.20	3.27	5.25	3.19	6.47**
	8	1.60	4.00	6.00	3.87	8.24**
접촉 유지	5	1.00	1.95	4.25	2.10	6.28**
	8	1.00	2.59	6.00	2.77	10.52***
저항	5	1.00	1.27	2.75	1.42	6.90**
	8	1.40	1.45	5.50	1.97	37.05***
회피	5	4.00	1.45	1.25	1.84	19.39***
	8	4.20	1.36	1.00	1.77	2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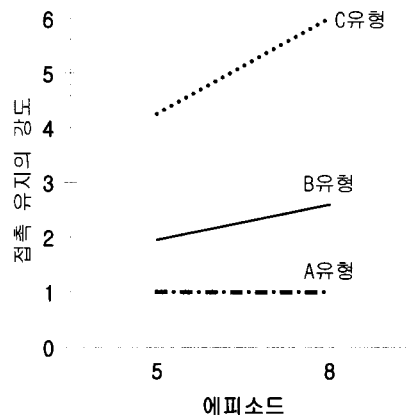
** $p < .01$ *** $p < .001$

피소드 8에서는 불안-저항 애착과 안정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높았다. 접촉 유지와 저항은 에피소드 5와 8에서 모두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과 안정 애착보다 높았다. 반면 회피의 경우 에피소드 5와 8에서 불안-회피 애착이 안정 애착, 불안-저항 애착보다 높았다. 에피소드 5와 8에서 애착 유형별로 보여준 상호 작용 행동의 강도의 변화는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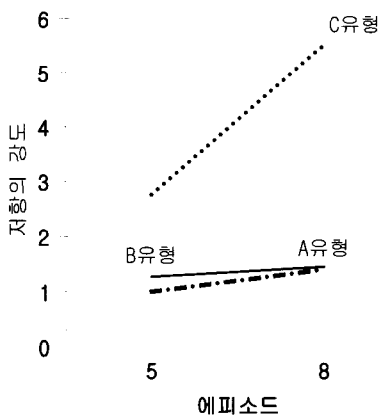
안정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의 경우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 유지, 그리고 저항이 증가하고 회피는 감소하였다. 반면 불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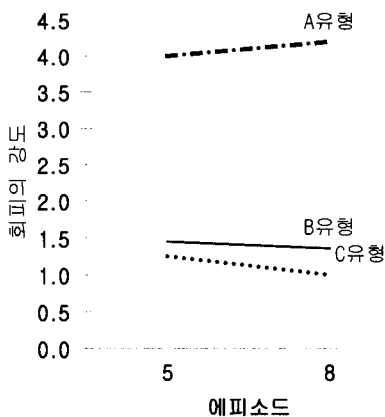
<그림 7> 애착 유형별 근접성 및 접촉추구



<그림 8> 애착 유형별 접촉 유지



<그림 9> 애착 유형별 저항



<그림 10> 애착 유형별 회피

피 애착 영아들은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추구, 저항, 회피가 증가하고 접촉 유지는 동일하여 안정 애착, 불안-저항 애착과 비교 시 접촉유지가 증가하지 않고, 회피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이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애착 행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 각 에피소드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개별 애착 행동과 재결합 상황인 에피소드 5와 8에서 어머니에 대해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아들의 애착 유형을 ABC/D로 분류하였으며, 각 애착 유형별로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작용 행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개별 애착 행동이 에피소드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탐색행동인 시각적 탐색, 탐색적 조작, 탐색적 이동은 엄마와 분리 전(에피소드 2)에 가장 활발하다가 엄마와 두 번째로 분리(에피소드 6)되면서 가장 낮아져 에피소드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애착행동인 울기는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분리 전(에피소드 2)에 가장 적게 나타나 에피소드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 및 탐색 행동의 균형을 평가하는 낯선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아들도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 같이 탐색행동체계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리 전 에피소드 및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이 증가하고, 울음이 적게 나타나는 반면 애착행동체계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리 에피소드에서는 애착행동인 울음이 증가하고 탐색적 이동, 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Ainsworth 등(1978)에서 나타난 미국 영아들의 개별애착행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영아들의 경우 Ainsworth 등(1978)에 비해 첫 번째 재결합(에피소드5)까지 탐색행동이 활발하고, 울기와 같은 애착행동을 적게 보인 반면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에서 Ainsworth 등(1978)에 비해 탐색행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울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애착 행동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 두 번째 분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아들은 두 번째 분리 후 낯선이가 들어왔을 때(에피소드 7) 울기가 감소하고, 탐색 행동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Ainsworth 등(1978)에서는 에피소드 7에서 탐색행동이 가장 적고, 에피소드 8에서 탐색 행동이 회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영아들이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받는 스트레스는 미국 영아들보다 적지만, 엄마와의 분리가 반복되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영아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엄마와의 분리 뿐 아니라 혼자 남아 있는데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두 번째 분리상황(에피소드 6)을 통해 우리나라 영아들이 탐색행동과 애착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영아에게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할 때 에피소드 6을 생략해서는

안됨을 시사한다.

2. 낮선 상황 절차 중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상호 작용 행동이 에피소드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근접성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저항이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영아들도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 같이 엄마와의 분리를 반복 경험(에피소드 6)함으로써 첫 번째 재결합보다 두 번째 재결합에서 애착행동 체계가 더 활성화됨을 보여줬다. 또한 근접성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그리고 저항을 보인 영아의 비율도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첫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5)보다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애착행동 체계가 더 활성화됨을 보여준다. 나유미(1997)에서도 우리나라 영아들이 에피소드 6을 지나면서 접근추구와 접촉유지행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Ainsworth 등(1978)에서 보인 미국 영아들의 상호작용행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아들의 경우 두 번째 재결합에서 회피가 감소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회피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영아들은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회피의 평균 강도가 첫 번째 재결합과 동일한 반면 회피를 보인 영아의 비율은 감소하고, 강한 회피를 보인 영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영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가 감소하는 반면 일부 영아들(불안-회피 유형, 비조직/비일관적 유형)만 회피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재결합보다 두 번째 재

결합이 영아들의 상호작용행동, 특히 애착행동을 유의미하게 활성화시켜 주며, 따라서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를 생략할 경우 우리나라 영아들의 보다 확실한 상호작용행동 특성을 관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회피의 경우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미국과 다른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네 번째 논의에서 살펴보겠다.

3.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안정 애착 62.9%, 불안-회피 애착 14.3%가, 불안-저항 애착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이 각각 11.4%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집단에서 안정 애착 55-65%, 불안-회피 애착 20-30%, 불안-저항 애착 5-15%,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15-25%로 보고된 것(Main, 1994; Goldberg 등, 1995)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내 선행 연구 중 Ainsworth의 낮선 상황 절차를 비교적 그대로 적용한 나유미, 최해훈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나유미(1997)에서는 안정 애착 98%, 불안-회피 애착 2%, 불안-저항 애착 0%로 나왔고, 최해훈(1997)에서는 안정 애착 57%, 불안-회피 애착 3%, 불안-저항 애착 27%, 비조직/비일관적 애착 13%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내의 표집 차이로 추론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유형 분포에서는 집단 수면을 하는 공동체 키부츠와 가족 중심 키부츠간에 애착 유형 분포가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 중심 키부츠보다 공동체 키부츠에서 안정 애착의 비율이 낮았으며, 불안-저항 분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연구에서도 사보르와 동경의 애착 유형 분포가 차이를 보였는데, 사보르 지역에서 동경 지역보다 안정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의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Sagi & van IJendoorn, 1999). van IJendoorn

과 Kroonenberg(1988)는 여러 문화권에서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 결과 애착 유형의 빈도에서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라기 보다는 문화내의 표집 차이임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와의 차이가 정말로 표집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나 다양한 표집을 이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애착 유형에 따라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개별 애착 행동의 경우 에피소드 7과 8에서 탐색적 조작과 시각적 탐색, 에피소드 2, 7, 8에서 울기가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애착 유형간 개별 애착 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회피 애착이 안정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보다 에피소드 7에서 시각적 탐색과 탐색적 조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회피 애착과 안정 애착이 불안-저항 애착보다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시각적 탐색과 탐색적 조작을 더 많이 하였다. 울기의 경우 엄마와 함께 있는 에피소드 2(분리 전)와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불안-저항 애착이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보다 많이 울었으며, 낯선이와 함께 있는 에피소드 7에서는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많이 울었다. 이는 불안-회피 애착은 에피소드 7에서 탐색 행동 체계(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되고, 안정 애착은 에피소드 8에서 탐색 행동 체계(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며, 불안-저항 애착은 에피소드 2, 7, 8에서 애착 행동 체계(울기)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반면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에서는 에피소드 3, 4, 5, 7, 8에서 탐색적 이동과 탐색적 조작이 애착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에피소드 2에서 8까지 울기가 애착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개별 애착 행동이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 이후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분리(에피소드 4) 전후에도 애착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는 첫 번째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영아들이 전반적으로 두 번째 분리 전(에피소드 5)까지 미국 영아들보다 탐색 행동이 활발하고, 덜 우는 등 낯선 사람이나 낯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이로 인해 아직 자신의 애착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 유형간 개별 애착 행동, 특히 탐색 행동(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의 차이가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 후인 에피소드 7, 8에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가 개별 애착 행동(탐색적 조작, 시각적 탐색, 울기)으로 애착 유형간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에피소드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불안-회피 애착은 낯선이가 들어오는 에피소드 7에서 탐색이 유의미하게 회복되지만, 안정 애착의 경우 탐색 행동이 불안-저항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것이 두 번째 재결합인 에피소드 8이라는 점이다. 이는 안정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이나 불안-저항 애착에 비해 엄마를 안전 기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불안-회피 애착 영아들은 전반적으로 탐색 행동이 다른 애착 유형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에서 다른 유형의 영아들보다 탐색 행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불안-저항 애착보다도 낮은 탐색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불안-회피 애착도 낯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Sroufe와 Waters(1977, Judith & Nathan, 1999

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낯선 상황 절차 중 불안-회피 영아들이 활발한 탐색행동을 보여주며, 이들이 재결합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거는 없지만 심장 박동률 연구 결과 분리에서 재결합 상황까지 심장 박동률이 증가하는 등 동요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에피소드 7에서 불안-회피 애착의 탐색 행동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회복하는 것은 불안-회피 영아들이 에피소드 6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마의 부재보다는 혼자 있는 것 때문임을 보여준다.

또한 나유미(1997)에서는 두 번째 재결합(에피소드 8)에서 우리나라 영아들이 엄마와 함께 있다해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탐색 행동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B₄ 유형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탐색행동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있어 두 번째 재결합에서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탐색적 조작과 시각적 탐색으로 이는 탐색적 행동보다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상호 작용 행동이 애착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 본 결과 에피소드 5와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유지, 저항, 회피가 모두 애착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애착 유형간 상호 작용 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접성과 접촉추구의 경우 에피소드 5에서는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강했으며, 에피소드 8에서는 불안-저항 애착과 안정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강했다. 접촉 유지와 저항은 에피소드 5와 8에서 모두 불안-저항 애착이 불안-회피 애착과 안정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회피의 경우 에피소드 5와 8에서 불안-회피 애착이 안정

애착, 불안-저항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불안-저항 애착의 경우 에피소드 5, 8에서 근접성과 접촉 추구, 접촉유지, 저항이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며, 불안-회피 애착은 에피소드 5와 8에서 회피가, 안정 애착은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추구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애착 행동을 조직화하는 방식의 개인차를 가정하는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영아도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애착 유형간 상호작용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미국 표본에서 불안-회피 애착은 에피소드 8(두 번째 재결합)에서 접촉유지가 증가하였으며, 불안-저항 애착은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과 접촉 추구가 감소하고, 회피가 증가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불안-회피의 경우 접촉유지가 두 에피소드에서 동일했고, 불안-저항 애착의 경우 근접성과 접촉 추구가 증가하고 회피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애착 유형별 상호 작용 행동의 특징적인 면으로 안정 애착은 에피소드 8에서 근접성 및 접촉추구, 불안-회피 애착은 에피소드 5와 8에서 높은 회피, 불안-저항 애착은 에피소드 5에서 높은 근접성과 접촉추구, 에피소드 5와 8에서 높은 접촉유지와 저항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접성과 접촉 추구에 있어 안정 애착의 특성이 불안-회피 애착과 구분되어 지는 것이 두 번째 분리 후인 에피소드 8이기 때문에 정확한 애착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에피소드 6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애착의 선행 요인이나 발달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아들의 개별 애착 행동(탐색 행동과 애착행동)과 상호 작용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었다. 특히 낯선 상황이 애착 및 탐색 행동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개별 애착 행동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데 이는 개별 애착 행동이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데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아들의 개별 애착 행동과 상호 작용행동의 변화 양상을 함께 분석하여 낯선 상황이 Ainsworth 등(1978)의 연구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영아들도 분리와 재결합을 중심으로 애착 행동 체계와 탐색 행동 체계가 변화함을 보여줬으며, 나아가 낯선 상황에서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 특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할 때 에피소드 6을 생략해서는 안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낯선 상황 절차가 표준화된 실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 연구에서(유효순, 1985; 김종순, 1989; 박응임·박성연, 1994; 이영환, 1992; 장미자·조복희, 1999)는 연구자들이 에피소드 6이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부여하며, 실제적으로 애착 유형 분류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서 생략하더라도 애착 유형 분류시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나유미, 1997)하여 실험 절차를 생략·수정하여 사용했다. 그리고 낯선 상황 절차를 비교적 그대로 적용한 나유미(1997)에서 41명 중 4명(9.8%)은 에피소드 6을 생략, 에피소드 6이 실시

된 영아 중 3분을 지속한 영아가 10.8%, 에피소드 6의 평균 지속시간은 78초였는데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에게 낯선 상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42.9%의 영아가 3분을 다 채웠으며, 에피소드 6의 평균 지속시간은 120초였으며, 단축한 영아들(57.1%)의 경우 75초였다. 이러한 결과는 Ainsworth 등(1979)에서 에피소드 길이를 3분 미만으로 단축한 5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에피소드 6이 우리나라 영아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적절한 에피소드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영아들은 Ainsworth 등(1979)의 연구결과에 비교하여 두 번째 분리 전(에피소드 5)까지는 미국 영아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애착 행동 체계가 잘 활성화되지 않다가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를 겪으면서 애착 행동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개별 애착행동인 탐색과 울기가 분리 전(에피소드 2)과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탐색 행동의 활성화가 두 번째 분리후인 에피소드 7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애착 유형간의 차이 역시 두 번째 분리(에피소드 6)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개별 애착 행동의 경우 두 번째 분리 후인 에피소드 7, 8에서 탐색적 조작과 시각적 탐색, 울기가 애착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상호 작용 행동에 있어서도 안정 애착의 특성이 두 번째 재결합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영아의 애착 특성상 에피소드 6이 생략될 경우 애착행동체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할 시 에피소드 6을 꼭 실시해야 된다는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1명에게 시행되었고, 실제로 분석된 자료는 35명으로 표집 수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영아의 애착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Ainsworth등(1978)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표집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12-18개월 중류층 비취업모 가정의 영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런 면에서 애착 유형 분포결과가 국내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인 것 역시 van IJzendoorn과 Kroonberg (1988)가 메타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문화내의 표집 차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더불어 선행 연구와의 비교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상의 보편성을 위해 낯선 상황의 표준화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 결과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우리나라 애착유형의 특성이 Ainsworth 등(1978)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발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유미(1997)에서는 각 문화의 정서 조절 양식이나 양육행동에서 문화적 차이가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어머니의 양육관, 아동과의 상호 작용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표준화된 절차(낯선 상황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각 문화권에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 등(1978)의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영아들도 분리와 재결합을 중심으로 애착행동체계와 탐색행동체계가 변화함을 보여줬다. 즉 우리나라 영아들도 엄마를 안전 기저로 하여 탐색 행동을 하였으며, 이

는 영아들에게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에서와 같이 현대 사회는 대부분 핵가족인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고, 애착이나 정서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할 곳도 많지 않다. 따라서 예방의 차원에서 임신을 한 부모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연구와 그에 따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 영속성 보존 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박성연(1994). 낯선 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59-170.
- 박용임·유명희(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 상황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신정현(1997). 애착장애아와 언어장애아의 특성 비교: 애착과 의사소통 의도를 중심으로. 이대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조절.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연숙·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1992).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 연구. *아동학회지*, 13(2), 5-14.
-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자·조복희(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4.
- 최해훈(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1982).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 (Ed.), *In the Beginning-Readings on infancy*, 135-143.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insworth, M. D. S., & Witting, B. A.(1969). Attachment &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Vol 4, pp.113-136). London : Methuen.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Goldberg, S., Muir, R., & Kerr, J.(1995). *Attachment Theory :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Analytic Press : Hillsdale.
- Grossmann, K. E., Grossmann, K., Spangler, G., Suess, G., & Unzner, L.(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Judith A. C., & Nathan A. F.(1994). Psychophysiological Measures in the Study of Attachment. In J. Cassidy, & R. S. Phillip(Eds.), *Handbook of attachment*(pp.713-734). New York : Guilford Press.
- Le Vine, R., & Miller, P. M.(1990). Commentary. *Human Development*, 33, 73-80.
- Main, M.(1994).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the study of attachment organization : Implication for psychoanalysis*. Annual Research Lecture to the British Psycho-Analytical Society, London.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Main, M., & Solomon, J.(1986). Discovery of an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T. B. Brazelton & M. W. Yogma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pp. 95-124). Norwood, NJ : Ablex.
- Main, M., & Solomon, J.(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121-16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gi, A., Lamb, M. E., Lewkowicz, K. S., Shoham, R., Dvir, R., & Estes, D.(1985). Security of infant mother, father, metapelet attachments among kibutz-reared Israel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Sagi, A., & van IJzendoorn, M. H.(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In J. Cassidy & R. S. Phillip (Eds.), *Handbook of attachment*(pp.

- 713-735). New York : Guilford Press.
- Sroufe, L. A., & Waters, E.(1997). Heart rate as a covergent measure in clinical and developmental research. *Merrill-Palmer Quarterly*, 23, 3-27.
- Takahashi, K.(1986). Examing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with Jap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1988). Cross 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2005년 4월 28일 투고 : 2005년 6월 26일 채택